

제 1 교시

국어 영역

출수형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선 시대 대표적인 유학자 율곡 이이는 책 속에 담긴 이치를 밝혀 이를 실천하는 독서를 강조했다. 그리고 이러한 독서에서 벗어난 그릇된 독서법을 독서 병통이라 부르며, 그 유형과 해결 방안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제시했다.

독서 병통의 첫 번째 유형은 ㉠그저 책만 읽는 병통이다. 이는 깊은 생각 없이 글자와 글귀 자체의 표면적인 뜻만 밝혀, 글에 숨겨진 이치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글귀의 옳고 그름을 깊이 따져 보거나, 자신의 일상이 책 속의 이치에 합당함을 깊이 반성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두 번째 유형은 ㉡마음만 앞서는 병통으로, 많은 책을 한 번에 탐해서 읽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다독은 책과 책을 연계하여 서로의 의미를 이해하고 책의 깊이를 측량할 수 있어 유용하나, 욕심이 지나치면 마음만 분주하여 책을 한 권씩 음미할 여유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병통은 책 한 권을 깊이 읽어 그 의미를 모두 알게 된 후에 다른 책을 읽는 독서로 극복할 수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책과 자신이 유리된 병통이다. 이는 독서로 성현의 뜻을 이해하고 앎을 확장했음에도, 이를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여 실천에 이르지 못한 경우이다. 이러한 병통은 성현의 가르침과 자신의 삶이 일치되도록 수양할 때 극복할 수 있다. 마지막 유형은 책에 대한 선입관으로 발생하는 병통으로, 두 경우가 있다. 먼저 ㉣책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병통이 있다. 이는 책이 조금만 어려워도 이치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겨 온 마음을 다해 읽려고 하지 않고 독서를 포기하는 경우이다. 또한 ㉤기이한 것에 현혹되는 병통이 있다. 이는 책에 초월적 지식이 담겨 있다고 여기고 이를 얻는데 조바심을 내다가 정작 책에 담겨 있는 지식은 파악하지 못한 경우이다. 이러한 선입관에 의한 병통들은 한 단락씩 세심하게 읽어, 이치에 한 걸음씩 순차적으로 다가가는 독서로 극복할 수 있다.

한편 율곡은 올바른 독서를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독서 자세를 강조했다. 독서 전에는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마음을 고요히 하며, 책을 경건하고 공경스런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이는 책 속에 담긴 심오한 진리를 대할 때 마음가짐이 흩어지면 올바른 독서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독서 중 의문이 많아진다고 독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독서에 온 마음을 다한다고 해도 늘 이치에 다다를 수는 없고, 때로는 이치를 파고들수록 의문이 꼬리를 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고비를 넘겨야 의문이 점점 풀려 글 속의 이치에 이를 수 있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마음가짐이 흩어지면 올바른 독서를 할 수 없다.
- ② 율곡은 그릇된 독서법의 유형과 해결책을 제시했다.
- ③ 율곡은 책 속의 이치를 밝혀 이를 실천하는 독서를 강조했다.
- ④ 독서에 온 마음을 다해도 이치에 다다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 ⑤ 다독은 책의 깊이를 측량하기 위한 독서에서 벗어난 독서법이다.

2. 다음은 독서 동아리 누리집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 ~ ㉤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제5차 독서 - 「중용」**  
 독서 교사 추천 ♥2 조회 30 23.04.12 댓글 5

**이번에 읽을 책은 유학 경전의 하나인 「중용」입니다. 이 책은 올바른 마음 자세와 관련된 삶의 이치, 형이상학적인 우주의 운행 원리 등에 대한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어려움이 있는 학생은 댓글을 남기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학생 1: 우주의 미래를 보는 법 같은 초월적 지식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책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고, 정작 책에 담긴 우주의 운행 원리에 대한 지식은 파악하지 못했어요. .... ㉠

↳ 학생 2: 깊은 생각 없이 글귀 자체의 뜻만 해석하며 읽었더니, 막상 글 속에 담긴 참뜻은 모르겠더라고요. .... ㉡

↳ 학생 3: 저는 첫 장부터 어려워 읽다 포기했어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책 같아서 읽기가 두려웠거든요. .... ㉢

↳ 학생 4: 저는 동양사상을 섭렵하고 싶은 욕심에 「논어」, 「대학」을 빌려 동시에 읽었는데요, 오히려 마음만 급하고 어떤 책도 깊이 있게 읽지 못하겠더라고요. .... ㉣

↳ 학생 5: 책을 읽으면서 올바른 마음 자세에 대해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런데 책 속의 내용대로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가 어렵네요. .... ㉤

- ① 율곡의 입장에서 ㉠은 책에 초월적 지식이 있다고 여기고 이를 얻으려고 하다가 발생한 병통이므로, ㉠에 해당한다고 보겠군.
- ② 율곡의 입장에서 ㉡는 ㉠에 해당하므로, 글귀의 옳고 그름을 깊이 따지며 읽는 독서법을 조언할 수 있겠군.
- ③ 율곡의 입장에서 ㉢는 ㉠에 해당하므로, 책을 한 단락씩 세심하게 읽어 나가는 독서법을 조언할 수 있겠군.
- ④ 율곡의 입장에서 ㉣는 ㉠에 해당하므로, 책 한 권의 의미를 모두 알게 된 후에 다른 책을 읽는 독서법을 조언할 수 있겠군.
- ⑤ 율곡의 입장에서 ㉤는 책에 담긴 성현의 뜻에 대한 선입관으로 발생한 병통이므로, ㉠에 해당한다고 보겠군.

3. [A]와 <보기>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학문을 하는 자가 문제를 만났다고 해서 책을 읽는 것을 그 만두어서는 안 된다. 책을 읽을수록 수많은 궁금증과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지혜의 문에 도달하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 ① 독서 전에는 마음을 고요히 해야 한다.
- ② 독서 전에는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한다.
- ③ 책에 대한 경건하고 공경스런 마음을 갖추어야 한다.
- ④ 독서 중 의문이 많아진다고 독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 ⑤ 독서를 할 때는 성인의 심오한 진리를 대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로고스를 가진 유일한 동물이자 정치적 동물이라 정의한다. ‘로고스’는 이성을 기반으로 하는 말을 의미한다. 그에 따르면 동물은 목소리를 통해 고통이나 쾌감만을 전달하지만, 인간은 로고스를 통해 무엇이 좋고 나쁜지 ㉠**분별할** 수 있으며, 자연이 인간마다 다르게 부여한 목적에 부합하는 삶인 ‘좋은 삶’을 추구할 수 있다.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하며, 완전한 공동체인 폴리스 안에서 로고스를 통해 공동의 일을 결정함으로써 최상의 좋음에 ㉡**도달할** 수 있는 정치적 동물이라 보았다. 이때 그는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 간의 평등 보장을 위해 법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 아렌트 역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폴리스와 같이 여러 사람이 모인 공적 공간에서 로고스를 통해 공동의 생활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공적 공간에서 공동의 생활에 참여하는 것을 ‘행위’라고 규정했으며, 행위는 인간의 근본적인 조건인 다원성을 기반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다원성은 인간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모두 동일하지만 개별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아렌트에 따르면 이러한 다원성으로 인해 인간은 공동체를 구성하고 공동체 안에서 이성을 기반으로 하는 말을 통해 타인에게 자신의 고유한 정체를 드러내려고 한다. 따라서 행위에는 반드시 말이 수반된다고 하였다.

아렌트에 따르면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적 공간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운 발언을 통해 공적 문제를 결정함으로써 정치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 정치적 자유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으로, 개인적 욕망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는 소극적인 자유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고유한 정체를 드러내고 공동의 일에 관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때 그녀가 말하는 권력은 지배자의 소유가 아니다. 아렌트는 정치가 오직 권력 쟁취를 위한 과정으로만 이해됨을 비판하고, 권력은 시민들이 의견을 나눌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므로 권력은 이미 공적 공간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다. 즉 정치적 자유를 향유한다는 것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주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렌트는 공적 공간을 형성하고 보존하기 위해 사람들이 약속을 통해 구성된 제도적 장치가 헌법이며, 혁명의 진정한 목표는 헌법 제정을 통한 정치적 자유의 확립이라고 보았다. 그녀에 따르면 법은 궁극적으로 시민 사이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은 비언어적 수단인 폭력이 아닌 발언을 통해 문제를 결정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렌트는 ㉣**법의 정당성은 법이 개인들 간의 행위의 결과로 만들어진 후 행위를 보장하는 경우에만 확보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은 권력을 독점하려는 지배자를 저지하고 시민이 권력을 나누어 갖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아렌트의 철학은 정치가 소수의 능력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행위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다는 깨달음을 준다.

(나)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서구 전통 철학은 말과 이성에 우위를 부여해 왔다. 이는 순수한 근원적 원리가 실존한다고 본 서구 전통 철학이 고정된 의미로서의 동일성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글과 달리 말은 고정된 의미를 ㉤**담보할** 수 있으며, 그때그때 변하는 감각이나 감정과 달리 이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크 데리다는 이렇게 순수한 근원을 상징하는 서구 전통 철학을 ‘로고스 중심주의’로 규정하고, 로고스 중심주의가 서구 중심주의의 기반이 된다고 비판했다. 서구 전통 철학이 ‘말 대 글’, ‘이성 대 감정’ 등의 이분법적 사고를 낳았으며, 전자를 중심에 두고 후자를 타자화함으로써 타자를 배척해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데리다는 지금까지 정당하다고 ㉥**간주되어** 온 법·정치 질서를 해체하여 순수한 근원에 대한 환상을 깨고자 했다.

데리다는 입헌 정치 체제에서 다른 법에 정립 근거를 제공하는 헌법은 이제껏 자유롭고 평등한 모든 국민의 자발적 동의를 통해 창출되었다는 믿음을 통해 정당화되어 왔지만, 헌법은 제한 권력인 국가가 성립된 이후 소급적으로 정당성이 부여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제한의 순간에는 제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선형적 법 규범이 부재하기에 제한 행위는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은 폭력과 다르지 않으며, 따라서 ㉦**헌법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는 법은 정의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데리다는 법질서의 해체와 재구축을 통해 법과 정의 사이의 간극을 좁혀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질서의 해체를 통해 법의 정당성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법적 권위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해체하고 은폐된 폭력을 드러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법과 정치 질서를 재구축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정의는 언제나 불완전하기에 정의를 향한 해체는 종결되지 않는다. 즉 데리다는 법의 정당성은 정의 실현을 위한 끊임없는 해체와 재구축의 반복을 통해 도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데리다가 구현하고자 하는 정의는 타자를 향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제한의 순간 형성된 국가는 ‘우리’라는 동일성을 중심에 두고 경계를 설정하며, 이러한 경계는 국경 통제뿐만 아니라 타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로 나타난다. 데리다는 국가의 동일성이 우연히 형성됐을 뿐만 아니라 불안정하다고 지적하며, 이질적인 것에 대한 개방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국가의 틀로 인해 권리를 박탈당한 이들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배제를 줄여 나감으로써 더 나은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데리다의 철학은 서구 중심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그 동안 소외되었던 주변부 문화에 주목하고 상대주의적 사고에 관심을 갖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4.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로고스에 대한 여러 철학자의 주장을 시대적 배경과 연관지어 고찰하고 있다.
- ② (나)는 로고스를 중심으로 한 사상의 경향을 언급하고 이를 비판하는 철학자의 주장을 소개하고 있다.
- ③ (가)와 달리 (나)는 로고스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보인 철학자들의 주장을 소개하고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다.
- ④ (나)와 달리 (가)는 로고스의 개념을 정의한 후 개념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로고스라는 개념을 수용하여 발전시킨 철학자들의 주장에 대한 의의와 한계를 밝히고 있다.

5. (가)의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ㄱ)와 아렌트의 견해(ㄴ)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ㄱ은 폴리스에서 최상의 좋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고, ㄴ은 공적 공간에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 ② ㄱ은 로고스를 통해 타고난 목적에 맞는 삶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ㄴ은 로고스를 통해 고유한 정체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 ③ ㄱ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것이고, ㄴ은 인간이 인간의 근본적인 조건으로 인해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 ④ ㄱ과 ㄴ은 모두 법을 통해 시민 간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 ⑤ ㄱ과 ㄴ은 모두 말을 통해 공동의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권력 쟁취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6. 다음은 갑과 을이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갑 : 테리다는 끊임없이 법질서를 해체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법질서를 모두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질서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허무주의가 아닐까?  
 을 : 테리다의 철학은 허무주의가 아니야. 왜냐하면 테리다의해체 철학은 ( ㉠ )하는 철학이기 때문이야.

- ① 법과 정의 사이의 간극을 좁혀 나감으로써 법질서의 해체와 재구축을 종결
- ② 법의 정당성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법적 권위에 대한 믿음을 해체
- ③ 구성원의 자발적인 동의를 바탕으로 불안정한 경계를 안정화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창출
- ④ 정의롭지 않은 법에 대한 해체와 법질서의 재구축을 반복함으로써 이질적인 것에 대해 개방된 사회를 추구
- ⑤ 정의의 기준을 재사유함으로써 완전한 정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법적 질서를 구축하여 법질서의 해체를 지향

7.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공적 공간에서 공동의 생활 참여가 중요함을, ㉢은 국가 설립의 기반이 부재함을 비판하는 입장이다.
- ② ㉡은 특정인이 권력을 독점하려는 것을, ㉢은 제한 행위라는 폭력이 정당화되어 온 것을 비판하는 입장이다. ③ ㉡은 로고스를 통해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견해에, ㉢은 근원적 원리로서의 로고스가 실존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 ④ ㉡은 비언어적 수단을 통해 문제를 결정하는 것에, ㉢은 맹목적인 믿음의 해체를 통해 법에 은폐된 폭력을 드러내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 ⑤ ㉡은 개인적 욕망에 따른 행동을 보장하기 위한 정치 질서 확립의 시급성에, ㉢은 서구 중심주의를 해체하기 위한 정치 질서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8. (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절대 왕권 체제였던 A 국에서 평민들의 혁명이 일어났다. 투표로 선출된 각 지역 대표들은 많은 토의 끝에 국민 주권론을 사상적 기반으로 하고 국민에게 동등한 참정권을 부여하는 헌법을 제정하여 B 연방국을 설립하였다. B 연방국은 주민 자치 제도를 보장하고 주민 의회를 통해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B 연방국의 C 지역에서 이민자들이 교육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C 지역의 주민 의회는 이민자에게 C 지역 주민과 동등한 교육권을 부여하는 법률을 발안하였다.

- ① A 국에서의 혁명으로 B 연방국이 설립된 것에 대해 (가)의 아렌트는 혁명의 진정한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겠군.
- ② B 연방국의 헌법이 제정된 것에 대해 (가)의 아렌트는 권력이 내재되어 있는 공적 공간을 보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보겠군.
- ③ B 연방국이 주민 자치 제도를 보장하는 것에 대해 (가)의 아렌트는 국민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 보겠군.
- ④ C 지역의 이민자들이 교육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 (나)의 테리다는 국가의 틀로 인해 타자에 대한 배제가 발생한 것이라 보겠군.
- ⑤ C 지역의 주민 의회에서 법률을 발안한 것에 대해 (나)의 테리다는 동일성을 중심으로 이민자에 대한 차별을 줄여 나가는 과정이라 보겠군.

9.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가를
- ② ㉡ : 다다를
- ③ ㉢ : 누릴
- ④ ㉣ : 뒷받침할
- ⑤ ㉤ : 여겨져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멜로드라마’는 18세기 프랑스에서 대중의 관심을 끄는 통속적 이야기를 화려한 볼거리와 음악을 통해 보여 주는 대중 연극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기 멜로드라마에서는 대개 사악한 봉건 귀족에게 뒤통을 맞는 선악부르주아의 이야기가 부르주아의 관점에서 전개되었다. 하지만 사회적 모순을 적극적으로 타개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한 채 다만 비약이나 우연 같은 의외성에 ㉠기대어 부르주아의 덕행과 순결함이 어떻게든 승리하도록 만들려고 했다.

19세기 자본주의 발달과 더불어 멜로드라마의 인물 구도에는 변화가 생겼다. 봉건 귀족의 자리는 악하되 강한 인물이 대신하고 그에 의해 고통 받는 선량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멜로드라마에서는 가족의 위기, 불가능한 사랑, 방해받는 모성, 불가피한 이별 등으로 주인공이 고통을 겪다가 행복해지는 과정이 다루어졌고, 선악 대립보다는 파토스(pathos)의 조성이 부각되었다. 곧 약자가 겪는 고통과 슬픔을 과장되게 보여 주면서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가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사회 어디에도 말할 수 없었던 약자들의 고통과 슬픔이 표출되었다는 점에서 보면, 이러한 파토스의 과잉은 그 나름의 의의를 지녔다고 할 만하다.

20세기에 들어서 멜로드라마는 영화로 중심을 옮겨 갔다. 영화는 클로즈업을 통해 관객들이 인물에 감정 이입을 하게 하기 쉬웠고, 통속성과 스펙터클을 만들어 내기에도 적절했으며, 음악을 통해 과잉된 정서를 표현하기에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멜로드라마 영화는 악인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약자로부터가 아니라 사회적 모순에 따른 억압적 상황에서 고통 받는 약자, 특히 여성들로부터 파토스를 이끌어 냈다. 이들은 가부장제나 계층적인 차이로 고통 받으면서도 허락되지 않은 삶의 지평을 갈망하는 ‘어찌할 수 없음’의 상황에 놓인 존재들이다. 일례로 비더의 ㉡<스텔라 달라스>(1937)에는 상류 계급의 문화 장벽을 넘지 못하고 남편과 헤어져야 했던 하층민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그녀는 딸을 곁에 두고 싶어 하면서도 딸이 더 나은 삶을 누리길 바라는 가운데 마음 깊이 고통을 겪는다. 이러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녀가 결국 딸을 상류층의 전 남편에게 보내는 선택을 하는 것은 희생적 모성이라는 이데올로기와 타협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딸의 결혼식을 창밖에서 바라보던 어머니가 입가에 미소를 띤 채 눈물을 흘리는 마지막 장면에서 관객들은 고통 어린 만족을 선택한 모성에 공감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

1950년대에 할리우드는 ‘가족 멜로드라마’라는 또 다른 멜로드라마의 흐름을 만들어 냈다. 이제 멜로드라마는 통속적 서사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갈등의 축도와도 같은 미국 중산층 핵가족에 주목하게 되는데, 그것은 가족이 자본이나 가부장제 같은 사회 권력이 작동하는 무대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크의 ㉢<천국이 허락한 모든 것>(1955)은 유복한 과부와 연하의 정원사의 사랑과 시련, 그리고 재회의 과정을 보여 주는데, 여기에는 그들의 결합을 반대하는 자식들이 가족의 이름으로 등장한다. 이제 가족은 더 이상 애뜻한 유대의 단위가 아니라

개인의 삶을 관리하는 제도가 된다. 따라서 자식들의 반대로 사랑을 포기했던 그녀가 거듭된 우연 끝에 병상의 정원사와 재회하게 되는 결말은 의미심장하다.

가족 멜로드라마로서 이 영화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지속되어 온 멜로드라마의 주요한 특징들을 담고 있으면서도 멜로드라마의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모순에 눈 감은 채 주인공의 성공에 안도하는 기존의 ‘행복한 결말’과는 구별되는 ‘행복하지 않은 해피엔딩’을 경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서크는 여전히 근본적인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결말에 관객들이 주목하게 하여,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이 ‘만들어진 현실’이며 행복한 결말은 인위적인 허구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자 했다. 고도로 표현적인 미장센(장면화)을 통해 여주인공이 누리는 삶의 풍요로움이 오히려 중산층의 지배적 가치와 규범으로 인한 억압과 소외의 상황임을 드러냈던 것이다.

멜로드라마는 ‘부적절한 리얼리즘’이니 ‘여성용 최후물’이니 하는 등의 비하하는 말로 언급되곤 한다. 하지만 서크의 영화에서처럼 멜로드라마는 사회적 약자의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전달하는 서사이면서 사회적 모순에 대한 아이러니한 반응으로도 읽힐 수 있다. ㉣현실에 중속되면서도 그 현실을 넘어서려는 절박한 요구는 영화라는 재현 체계 속에서 대중들과 끊임없이 교감하면서 멜로드라마를 생산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10. ‘멜로드라마’에 대한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갈등을 낳은 사회적 모순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는 내용은 없었다.
- ② 통속성이 점차 사라졌고 정서 표출보다는 현실 묘사에 치중하게 되었다.
- ③ 영화에 나타난 가정이나 개인의 문제는 사회적 문제가 전연되어 표현된 것이다.
- ④ 작위적인 서사를 통해 인물이 처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었다.
- ⑤ 인물들의 선악 대립이 차츰 약해지고 사회적 상황으로 인한 고통과 희생의 파토스가 형상화되었다.

11.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 모두 음악을 사용하여 인물의 고통과 슬픔을 극적으로 표현했을 것이다.
- ② ㉠은 ㉡에 비해 관객들이 여성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정도가 더 강했을 것이다.
- ③ ㉠에 비해 ㉡은 결말에서 관객들에게 더 능동적인 감상을 이끌어 내려 했을 것이다.
- ④ ㉠과 ㉡ 모두 현실적 억압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약자를 그렸을 것이다.
- ⑤ ㉠과 ㉡ 모두 위기에 빠진 중산층 가족의 가치 회복이라는 주제 의식을 담았을 것이다.

12. 한국의 대표적인 멜로드라마에 대해 ㉓에 주목하여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장한몽>에서 돈 많은 악인 김중배로 인해 심순애가 변심하고 가난한 애인 이수일이 정신적인 파탄에 이르는 모습은 돈과 사랑을 대립적으로 생각했던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을 보여 준다.
- ② <검사와 여선생>에서 살인범의 누명을 쓴 여선생 앞에 검사가 된 제자가 나타나 사건을 해결하지만, 작품의 초점은 세상 누구에게도 호소하지 못한 약자의 사정을 보여 주는 데 있다.
- ③ <자유부인>에서 사회 활동을 갈망했던 가정주부 오선영이 고갈할 수 있었던 것은 춤바람이 났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지만, 실상 이 춤바람은 권위적인 가부장제에 대한 반발로도 볼 수 있다.
- ④ <미워도 다시 한 번>에서 사랑하는 아이를 친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야 하는 어머니와 어머니 곁에 있고 싶지만 떠나야 하는 아이가 처한 상황은 인간 운명의 어찌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 ⑤ <별들의 고향>에서 도시에 진입했다가 이기적인 남성들에 의해 버림받고 점점 타락해 가는 경이라는 여성은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인간 소외를 사실적으로 보여 준다.

13. ㉓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그는 벽에 기대어 책을 읽었다.
- ② 우리 경제는 수출에 기대어 성장을 지속해 온 측면이 크다.
- ③ 아이들이 담장에 기대어 서서 술래잡기를 하고 있다.
- ④ 언덕의 경사에 기대어 지은 집이라 전망이 매우 좋다.
- ⑤ 전신주에 기대어 놓인 자전거가 바람에 쓰러졌다.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판 구조 이론이 도입된 이후 국내의 지질학자들은 한반도가 어디에서 이동해 왔는지, 그리고 한반도가 원래부터 한 조각이었는지 아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여 왔다. 1980년대에 이르러 중국 남부와 북부가 서로 다른 판이었으며 이들이 서로 충돌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자 남중국 판과 북중국 판 간의 충돌대인 다비-수루 벨트가 한반도까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한반도 형성 과정에 대한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에는 수년 전 충청남도 홍성 지역에서 발견된 에클로자이트라는 암석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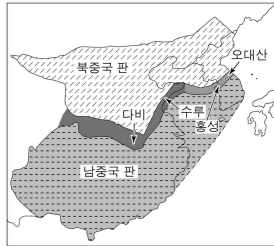
대륙의 충돌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특수한 변성암인 에클로자이트의 지질학적 의미는 히말라야 조산대의 형성 과정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다. 히말라야 조산대는 5천만 년 전부터 시작된 아시아 대륙(아시아 판)과 인도 대륙(인도 판)의 충돌에 의해 형성된 대륙 충돌대이다. 두 대륙의 충돌 이전에 그 사이에 존재했던 넓은 해양 밑의 해양 지각이 아시아 대륙 밑으로 밀려 들어가는 섭입(攝入)이 일어났다. 이때 섭입된 해양 지각 내의 현무암질 화성암이 지하 깊은 곳에 도달했을 때 높은 압력에 의해 에클로자이트로 변성되었다. 해양 지각의 섭입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두 대륙 사이의 해양은 점점 좁아져 마침내 두 대륙이 충돌하였다. 이때 발생한 강력한 압축력에 의해 아시아 대륙의 충돌 부분이 습곡이 되어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으며 해양 지각 일부가 산 위로 밀려 올라갔다. 또한 인도 대륙의 앞부분이 아시아 대륙 밑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히말라야 산맥을 더 높이 밀어 올렸다. 그 이후 두 대륙 충돌 전에 이미 섭입된 인도 대륙에 연결된 해양 지각이 추처럼 작용하면서 인도 대륙을 지하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 결과 대륙 지각 내에 있던 현무암질 화성암도 높은 압력을 받아 에클로자이트로 변성되었다.

히말라야 충돌대 형성 시 지하로 끌려 들어가던 인도 대륙 지각이 지하 120 km 지점의 맨틀 깊이에 도달했을 때 주변의 맨틀보다 밀도가 낮은 대륙 지각은 부력이 커져서 위로 올라가려는 힘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해양 지각은 섭입 시 형성된 고밀도 광물에 의해 밀도가 높아져 계속 가라앉으려고 했으므로 결국 대륙 지각은 해양 지각과 끊어져 지표로 빠르게 상승하여 노출되었다. 이때 일부 맨틀도 대륙 지각에 붙어 함께 상승하여 지표에 노출되었다. 그리하여 히말라야 충돌대에는 해양 지각, 에클로자이트, 맨틀 물질들이 분포하게 되었다. 이런 방식으로 에클로자이트가 모든 대륙 충돌대에서 나타난다.

남중국 판과 북중국 판 사이의 다비-수루 벨트에서도 2억 2천만~2억 3천만 년 전(트라이아스기 중기)에 형성된 에클로자이트가 발견되었다. 이는 남중국 판과 북중국 판이 충돌하였고 충돌 이전에 두 대륙 사이에 해양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지질학적 증거에 따르면 이 두 대륙은 4~5억 년 전 곤드와나 초대륙의 일부로서 적도 근처에 위치해 있었는데 곤드와나로부터 각각 분리되어 서로 다른 속도로 북쪽으로 이동하다가 현 위치

에서 충돌하였다. 그리고 충돌 시 남중국 판의 앞부분이 북중국 판 밑으로 섭입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충돌대의 동쪽 부분인 산둥 반도 지역은, 대부분이 산악인 서쪽의 다비 지역과는 달리 높은 산맥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충돌 후 발생한 인장력에 의해 높은 산이 낮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홍성 지역에서 발견된 에클로자이트는 연대 측정 결과 2억 3천만 년 전에 형성된 것임이 밝혀졌다. 이는 다비-수루 벨트의 에클로자이트와 동일한 연대의 것이다. 국내외의 많은 학자들은 이 증거가 중국의 충돌대가 한반도로 연결



되었다는 사실을 지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홍성 지역은 산둥 반도와 마찬가지로 높은 산맥 지역은 아니지만 에클로자이트와 함께 맨틀 물질도 발견되어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추가적으로 오대산 지역에서 판의 충돌이 2억 5천만 년 전(페름기 말기)에 일어났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 홍성 지역과 오대산 지역을 연결하는 대륙 충돌대가 한반도 내에 존재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동북아시아 지질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한반도의 지질 해석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14. 에클로자이트에 대한 위 글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높은 압력을 받아 형성된다.
- ② 산둥 반도와 홍성 지역에서 모두 발견된다.
- ③ 현무암질 화성암이 변성되어 생성된 것이다.
- ④ 대륙 충돌이 일어난 후에야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 ⑤ 대륙 충돌 전 대륙들 사이에 해양이 존재했음을 보여 준다.

15. ㉠이 사실일 경우 추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대륙판들의 충돌이 한반도 동쪽에서부터 일어났을 것이다.
- ② 한반도는 원래 적도 부근에 존재했던 대륙의 일부였을 것이다.
- ③ 충돌 시 한반도 북부 지역의 일부가 한반도 남부 지역의 밑으로 섭입되었을 것이다.
- ④ 홍성-오대산 충돌대를 중심으로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 사이에는 해양이 있었을 것이다.
- ⑤ 홍성-오대산 충돌대를 따라 존재했을 높은 산맥은 대륙 충돌 후 발생한 인장력에 의해 낮아졌을 것이다.

16. 위 글을 읽고 <보기>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판 경계의 세 가지 유형

1. 발산 경계: 이 경계에서는 맨틀에서 올라온 마그마가 굳어서 생성된 지각이 기존 지각을 양옆으로 밀어낸다.  
예) 대서양 바다 밑의 대양저 산맥
2. 수렴 경계: 이 경계에서는 해양판 섭입이나 대륙 충돌에 의해 해양 지각이 맨틀로 들어가 소멸된다.  
예) 1) 섭입형: 일본 동해안, 안데스 산맥  
2) 충돌형: 알프스, 히말라야, 우랄 조산대
3. 유지 경계: 이 경계에서는 새로운 지각이 생성되거나 소멸됨 없이 판 경계면을 따라 두 판이 수평 이동한다.  
예) 캘리포니아의 산안드레아스 단층

- ① 산안드레아스 단층 지역에서는 에클로자이트가 형성되지 않는다.
- ② 안데스 산맥 지역에서는 에클로자이트가 형성되지 않는다.
- ③ 히말라야 조산대에는 해양 생물 화석이 나타난다.
- ④ 알프스 조산대에는 맨틀 물질이 나타난다.
- ⑤ 우랄 조산대에는 습곡이 나타난다.

17. 다음은 지문을 읽은 학생이 작성한 탐구 노트의 일부이다.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의 [가]~[다]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보 기>—

홍성 지역에서 발견된 에클로자이트와 맨틀 물질은 한반도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결정적 단서이다. 지문의 원리를 적용해 볼 때, 대륙 충돌대에서 에클로자이트가 지표로 노출될 수 있었던 핵심 원인은 [ (가) ]이다. 만약 홍성 지역이 과거 대륙 충돌대의 일부라면, 당시 섭입이 일어날 때 [ (나) ] 판의 앞부분이 상대 판의 밑으로 밀려 들어갔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형성된 에클로자이트는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과 [ (다) ]으로써 지표로 빠르게 상승할 수 있었을 것이다.

- |                       |     |     |     |
|-----------------------|-----|-----|-----|
|                       | (가) | (나) | (다) |
| ① 대륙 지각과 맨틀의 밀도 차이    | 북중국 | 북중국 | 결합됨 |
| ② 대륙 지각과 맨틀의 밀도 차이    | 남중국 | 남중국 | 분리됨 |
| ③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의 밀도 차이 | 남중국 | 북중국 | 분리됨 |
| ④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의 밀도 차이 | 북중국 | 북중국 | 분리됨 |
| ⑤ 해양 지각과 맨틀의 밀도 차이    | 남중국 | 남중국 | 결합됨 |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옹고집은 성격이 고약한 부자이다. 어느 날 옹고집 앞에 가짜 옹고집이 나타나, 서로가 자신이 진짜라고 주장한다.

두 옹고집이 송사 가는 제, 읍내를 들어가니 짚옹고집 거동 보소. 주저 없이 제가 앞에 가며 읍의 촌가인 하나와 만나 보면 깜짝 반겨 두 손을 잡고, “나는 가변을 송사하려 가는지라. 자네와 나와 아무 연분에 서로 알아 죽마고우로 지냈으니 나를 몰라볼소냐.”

또 하나를 보면, “자네 내게서 아무 연분에 돈 오십 냥을 취하여 갔으니 이참에 못 주겠느냐. 노잣돈 보태 쓰게 하라.”

또 하나 보면, “자네 귀퉁이 눈 두 섬지기 이때까지 소작할 제, 거년 선자(先資)\* 스물닷 말을 어찌 아니 보내는가.”

이처럼 하니 참옹고집이 짚옹고집을 본즉 낯날이 내 소견 대로 내가 할 말을 제가 먼저 하니 기가 질려 뒤에 오며, 실성한 사람같이, 아는 사람도 오히려 짚옹고집같이도 모르는지라.

짚옹고집이 노변에서 지나가는 사람 데리고 하는 말이, “가운이 불길하여 어떠한 놈이 왔으되 용모 나와 비슷해 제가 내라 하고 자칭 옹고집이라 하기로, 억울한 분을 걸디지 못하여 일체 구별로 송사하려 가는지라. 뒤에 오는 사람이 기네. 자네들도 대소간 눈이 있거든 혹 흑백을 가릴소냐.”

참옹고집이 뒤에 오면서 기가 막히고 얼척도 없어 말도 못하고 울음 울 제, 행인들이 이어 보고 하는 말이, “누가 알아보리오. 뉘 아들인지 알 수가 없다. 아마도 상동이란 말밖에 또 하리오.”

(중략)

짚옹고집 반만 웃고 집으로 돌아와서 바로 내정으로 들어가니 처자 권속이 내달아 잡고 들어가니, “하늘도 무심치 아니하기로 **내 좋은 형세와 처자를 빼앗기지 아니하였다.**”

송사를 이긴 내력을 말하니 처자 권속이며 상하 노복 등이 참옹고집으로 알고, 마누라는, “**㉠우리 서방님이 그런 고생이 또 있을까.**”

못 아들 나서며, “그런 자식에게 아버지가 큰 봉채를 보았다.” 노복 좋으며 마을 사람들이 다 칭찬하거늘, 짚옹고집이, “내가 혈혈단신으로 자수성가하였기로 전곡을 과연 아낄 줄만 알았더니 내빈 왕객 접대 상과 만가 동냥 거지들을 독하게 박대하였더니 인심부득 질로 되어 이런 재변이 난 듯싶으니, 사람 되고 개과천선 못할소냐. 오늘부터 재물과 곡식을 흠어 활인구제(活人救濟)하리라.”

**전곡을 흠어 사망에 구차한 사람을 구제**한단 말이 낭자하니 팔도 거지들과 각 절 유결승들이 구름 모이듯 모여드니 백냥 돈 천 냥 돈을 흠어 주니 옹고집은 인심 좋단 말이 낭자하더라.

하루는 주효를 낭자케 장만하고 원근에 모모한 친구며 사방

사람을 청좌하여 대연을 배설할 제, 이때의 참옹고집 전전걸식하다가 맹랑촌 옹고집 활인구제한단 말 듣고 분심으로 하는 말이,

“**㉡남의 재물 갖고 제 마음대로 쓰는 놈은 어떤 놈의 팔자 인고**, 찾아가서 내 집 망중 보고 죽자.”

하고 죽장망혜로 찾아갈 제, **㉢짚옹고집 도술 보고 근처에 참옹고집 온 줄 알고** 사환을 분부하되,

“오늘 큰 잔치에 음식도 낭자하고 걸인도 많을 제, 타일 친하게 다투던 거짓 옹가 놈이 배도 고프고 기한(飢寒)을 견디지 못하여 전전걸식 다닐 제, 잔치 소문을 듣고 마을 근처에 왔으나 차마 못 들어오는가 싶으니 너희 등은 가서 데려오라. 일변 생각하면 되도 못할 일 하다가 중장(重杖)만 맞았으니 불쌍하다.”

사환 등이 영을 듣고 사방으로 나가 보니 **㉣과연** 마을 뒷산에 앉아 잔치하는 태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앉았거늘 사환들이 바로 가서 영검결에 배례하고 문안하니, 슬프다. 참옹고집이 대성통곡 절로 난다.

사환들이 가자 하니, “**㉤갈 마음 전혀 없다.**”

여러 놈이 부축하여 들어가서 좌상에 앉히니 짚옹고집 일어서며 인사 후에,

“네 들어라. 형세 있어 좋다 하는 것이 활인구제하여 만인적선이 으뜸이거늘 천여 석 거부로서 첫째로는 부모 박대하니 세상에 용납지 못할 놈이요, 둘째는 유결산승 육보이니 불도가 어찌 허사리오. 우리 절 도승이 나를 보내어 묘하신 불법으로 가르쳐서 너의 죄목을 잡아 아주 죽여 세상에 영영 자취 없게 하여 세상 사람에게 모범이 되게 하라 하시거늘 너를 다시 세상에 내어 보내기는 나의 어진 용심으로 살린 것이니, 이만해도 후생에게 너 같은 행실을 징계한 사례가 될 듯싶으니 이후는 아무쪼록 개과하라.”

[A] 하고, 좌상에 나앉으며 문득 자빠지니 허수아비 찰벼 짚뭉치니라.

이로 좌상이 다 놀라 공고를 하고 옹고집이 이날부터 개과천선하여 세상에 전하여 일가친척이며 원근친고 사람에게 인심을 주장하니 옹고집의 인심을 만만세에 전하더라.

- 작자 미상, 옹고집전 -

\* 선자 :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드는 돈.

18.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송사 원인이 금전적 이해관계에 있음이 밝혀진다.
- ② 송사 결과에 대한 행인들의 상반된 예측이 제시된다.
- ③ 송사 가는 이의 답답한 심정이 서술자에 의해 드러난다.
- ④ 송사 가는 이들 간에 서로를 비방하는 대화가 이어진다.
- ⑤ 송사 가는 길에 새롭게 등장한 인물의 외양이 묘사된다.

19.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마누라'는 집에 돌아온 이를 '참옹고집'으로 알고 있다.
- ② ㉡ : '참옹고집'은 '짚옹고집'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 ③ ㉢ : '짚옹고집'은 '참옹고집'의 거동을 수상히 여기고 있다.
- ④ ㉣ : '참옹고집'은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서러워하고 있다.
- ⑤ ㉣ : '참옹고집'은 '사환들'에게 거절의 의사를 표하고 있다.

2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옹고집전 은 주인공 '참옹고집'이 소의를 경협하도록 그와 똑같이 생긴 '짚옹고집'을 등장시켜 그를 대신하게 하는 독특한 인물 관계를 설정하였다. 이는 '참옹고집'으로 형상화된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부유층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무와도 연결된다. 부유하게 살면서도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지 않고 외면하면 공동체로부터 소외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 ① '내 좋은 형세와 처자를 빼앗기지 아니하였다'고 말한 데에서, '참옹고집'이 송사 이전부터 가족에게 소외되어 온 정황이 '짚옹고집'을 통해 드러남을 알 수 있군.
- ② '만가 동냥 거지들을 독하게 박대'하였다고 말한 데에서, 가난한 이들을 외면했던 '참옹고집'의 행적이 '짚옹고집'을 통해 언급됨을 알 수 있군.
- ③ '전곡을 훔쳐 사방에 구차한 사람을 구제'한다는 데에서, 가난한 이들을 구제해야 하는 '참옹고집'의 책무가 '짚옹고집'을 통해 이행됨을 알 수 있군.
- ④ '짚옹고집'이 '백 냥 돈 천 냥 돈을 훔쳐' 줄 수 있을 만큼 '참옹고집'의 재물이 많았다는 데에서,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부유층을 연상시키는 '참옹고집'의 모습이 확인되는군.
- ⑤ '참옹고집'이 '짚옹고집'에게 자리를 빼앗기고 '전전걸식'하며 살아가는 데에서,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어 고통을 겪는 '참옹고집'의 처지가 확인되는군.

21. <보기>는 옹고집전 이본의 일부이다. [B]와 <보기>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참옹고집 듣기를 다하여 천방지방 도사 앞에 급히 나아가 함장배례하며 공손히 하는 말이, “이놈의 죄를 생각하면 천사(千死)라도 무석(無惜)이요 만사라도 무석이나 명명하신 도덕하에 제발 덕분 살려 주오. 당상의 늙은 모친 규중의 어린 처자 다시 보게 하옵소서. 원견지 하온 후 지하에 돌아가도 여한이 없을까 하나이다. 제발 덕분 살려 주옵소서.”

만단으로 애걸하니 도사 하는 말이, “천지간에 몸쓸 늙아. 인제도 팔십 당년 늙은 모친 냉돌방에 구박할까, 불도를 능멸할까. 너 같은 몸쓸 늙은 응당 죽일 것이로되 정상(情狀)이 불쌍하고 너의 처자 가여운 고로 놓아주니 돌아가 개과천선하라.”

부적을 써 주며 왈, “이 부적을 몸에 붙이고 네 집에 돌아가면 괴이한 일 있으리라.”

하고 홀연 간데없거늘 참옹고집 즐겨 돌아와서 제집 문전 다다르니 고루거각 높은 집에 청풍명월 맑은 경은 옛 놀던 풍경이라

- ① '참옹고집'을 살려 두는 이유로 [B]는 '나의 어진 용심'을, <보기>는 '정상이 불쌍'함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B]에서는 용서하는 이의 마음을 고려했고, <보기>에서는 용서받는 이의 처지까지도 고려하였군.
- ② '참옹고집'을 살려 두는 이유로 [B]는 '이만해도 후생에게' '징계한 사례'가 됨을, <보기>는 '너의 처자 가여'움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B]에서는 징계의 사회적 효용이, <보기>에서는 징계로 인한 가족의 피해가 고려되었군.
- ③ '참옹고집'의 악행으로 [B]는 '부모 박대'를, <보기>는 '모친' '구박'을 거론하는 것으로 보아, [B]와 <보기>에서 모두 '참옹고집'의 비인륜적 행위가 징계의 사유에 포함되었군.
- ④ '참옹고집'에게 개과천선하라는 요청이 [B]와 <보기> 모두 인물의 발화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B]와 <보기>에서 모두 인물의 발화는 '참옹고집'이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는 계기에 해당하는군.
- ⑤ '참옹고집'을 훈계하던 존재가 [B]에서는 '허수아비'로 변하고, <보기>에서는 '홀연' 사라지는 것으로 보아, [B]와 <보기>에서 모두 신이한 사건이 벌어지는군.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薄紗) 고깔에 감추오고

두 불에 **호르는 빛**  
정작으로 **교와저** 서러워라 .

빈 대(臺)에 **황촉(黃燭)** 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일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 올린 외씨보신이어.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오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뺨는 손이  
깊은 마음 속 거룩한 합장인 양하고

이 밤사 **귀포리**도 지새는 삼경(三更)인데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 조지훈, 승무 -

(나)

여러 산봉우리에 여러 마리의 삐꾸기가  
울음 울어  
떼로 울음 울어  
석 석 삼년도 봄을 더 넘겨서야  
나는 길든\* **절뚝**에 맛이 들고  
그것이 실상은 한 마리의 삐꾸새임을  
알아냈다.

지리산 하  
한 봉우리에 숨은 **실제의 삐꾸새**가  
한 울음을 토해 내면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또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그래서 **여러 마리의 삐꾸새**로 울음 우는 것을  
알았다.

지리산 중

[A]

저 연연한 산봉우리들이 다 울고 나서  
오래 남은 추스름 끝에  
비로소 한 소리 없는 강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섬진강 섬진강  
그 힘센 물줄기가  
하동 쪽 **남해**로 흘러들어  
남해 군도의 여러 작은 **섬**을 밀어 올리는 것을 보았다.

봄 하룻날 그 눈물 다 슬리어서  
지리산 하에서 울던 한 마리 삐꾸새 울음이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로 남아  
이 세석(細石)\* **철쭉**꽃밭을 다 태우는 것을 보았다.

- 송수린, 지리산 삐꾸새 -

\* 길든 : 길이 덜 든.

\* 세석 : 지리산 정상 아래 부근의 지명.

(다)

무등산 한 활개 뫼가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떼쳐 와 **㉠제월봉(霽月峰)**이 되었거늘  
무변대야(無邊大野)\*에 무슨 짐작 하노라  
일곱 굽이 한데 뭉쳐 우뚝우뚝 벌여 놓 듯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든 **㉡높은 용**이  
선잠을 갓 깨어 머리를 앓혔으니  
너럭바위 위에 송죽을 헤치고 **㉢정자**를 앓혔으니  
구름 탄 청학이 천 리를 가리라 두 날개 벌렸는 듯  
옥천산 용천산 내린 **㉣물**이

정자 앞 넓은 들에 울울히 퍼진 듯이  
넓거든 기노라 푸르거든 희지 마나  
쌍룡이 뒤트는 듯 긴 김을 펼쳤는 듯  
어디로 가노라 무슨 일 바빠서  
닫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호르는 듯  
물 좇은 사정(沙汀)\*은 눈같이 퍼졌거든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이르노라  
앉으라 내리락 모이락 흠으라

노화(蘆花)\*를 사이 두고 우리곶 좇느뇨  
넓은 길 밖이요 긴 하늘 아래 두르고 쫓은 것은  
피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높은 듯 낮은 듯 굶는 듯 잇는 듯  
숨거니 뵈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어지러운 가운데 이름난 양하여  
하늘도 저어치 않고 우뚝이 섰는 것이 **㉤추월산** 머리 짓고  
용구산 몽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성산이 허공에 벌였거든  
원근창애(遠近蒼崖)에 머문 짓도 하도 할사

- 송순, 면앙정가 -

\* 무변대야 : 끝없이 넓은 들관.

\* 사정 : 모래톱.

\* 노화 : 갈대.

[A]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단호한 어조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 ②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고조한다.
- ③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대상의 운동감을 나타낸다.
- ④ 대립적 시각을 바탕으로 긍정적 상황 인식을 드러낸다.
- ⑤ 역설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의미를 긴장감 있게 제시한다.

23.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승무는 무녀(舞女)를 무대 공간의 중심에 배치하여 관객이 이를 바라보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무녀와 그의 춤을 초점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빛이 동원되어야 한다. 이 작품에는 지상과 천상, 상승과 하강, 생성과 소멸의 속성을 지닌 다양한 빛이 등장하여 무녀의 외양과 행위, 더 나아가 내면세계를 비추고 있다. 이 빛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고, 관객이 무대와 인물을 관조하거나 그것에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① 어두운 '밤'은 무녀를 비추는 다양한 빛의 양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관객의 관심이 무녀에게 집중되게 한다.
- ② '흐르는 빛'은 여러 빛들에 비추어진 무녀의 '낮빛'으로서, 상승 이미지를 통해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③ 말없이 녹아내리는 '황촉불'과 기우는 '달'은 하강과 소멸 이미지를 지니고 있어 유한한 인간 존재를 떠올리게 한다.
- ④ 6연의 천상의 '별빛'은 번뇌에서 벗어난 초탈의 세계를 환기하면서 승화의 의미로 이어지게 된다.
- ⑤ 7연의 '별빛'은 무녀의 눈과 연결되어 그녀가 지향하는 세계와 내면세계를 서로 이어 준다.

24. (가)의 '서러워라'와 (나)의 '설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설움은 역사적인 삶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② (나)의 설움은 자연물의 주술적 속성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출된다.
- ③ (가)와 (나)의 설움에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담겨있다.
- ④ (가)와 (나)의 설움은 외부 대상과는 무관하게 화자의 내면에서 생성되는 정서이다.
- ⑤ (가)는 밤을 지새우는 '귀뚜라미'의 소리를 통해, (나)는 '철쭉꽃'의 색채를 통해 설움을 환기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25.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에는 화자가 깨달음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과 노력이 나타난다.
- ② 2연의 '실제의 뼈꼭새'는 '여러 마리의 뼈꼭새'와 상반되는 의미를 형성한다.
- ③ 2연~4연의 첫 행들은 각 연의 시적 공간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는 방식으로 시상 전개에 통일성을 부여한다.
- ④ 3연~4연에서 '산봉우리', '강', '남해', '섬'이 잇달아 연결되면서 변화와 생성의 세계를 보여 준다.
- ⑤ 3연~5연은 연의 끝 부분에 '보았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깨달음의 의미를 강조한다.

26.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달리, [B]는 직유를 통해 시각적 인상을 구체화한다.
- ② [B]와 달리, [A]는 음보율을 통해 정형적 운율미를 느끼게 한다.
- ③ [A]와 [B] 모두 어순의 도치를 통해 의미를 강조한다.
- ④ [A]와 [B] 모두 반어적 표현을 통해 냉소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⑤ [A]와 [B] 모두 영탄적 표현을 통해 자연물에서 받은 감흥을 표출한다.

27.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순순이 면앙정가에서 펼쳐 보인 세계는 흔히 '면앙우주'라고 일컬어진다. 면앙우주는 작가에게 친치만물의 이치를 심성의 수양으로 내면화하는 공간이었다. 작가는 자연 세계를 통해 인간 세계의 이치를 읽어 내는 가운데 조화와 합일을 추구했다. 그는 객관적 자연물에 인간적 생명력과 의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상과 세계관을 표출했다.

- ① ㉠의 '제월봉'이 '무번대야에 무슨 짐작'을 한다는 표현에는 높은 이상을 향한 작가의 의지가 자연물에 투영되어 있군.
- ② ㉡의 '높은 용'이 '선잠을 갖 깨어'라는 표현에는 이상을 펼치기에 이미 늦었다고 여기는 작가의 조바심이 담겨 있어.
- ③ ㉢의 '정자'가 '청학'처럼 '두 날개 벌렸는 듯'하다는 표현에서 면앙정이 비상(飛上)을 위한 심성 수양의 장소임을 알 수 있군.
- ④ ㉣의 '물'이 '밤낮으로 흐르는' 모습을 통해 작가도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쉽 없이 행해야 함을 드러내고 있어.
- ⑤ ㉤의 '추월산'을 비롯한 여러 산들이 '높은 듯 낮은 듯 굽는 듯 있는 듯' 서 있다는 표현에서 조화와 합일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볼 수 있군.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녀는 목덜미가 선득거리자 외투 깃을 올렸다. 회사 앞 골목을 빠져나오며 그녀는 생각했다.

‘내 인생이 남 보기에 그렇게 안되어 보일 만큼 실패한 걸까?’

그러자 괜히 웃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아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자기가 동료들과 세상 사람들을 멋지게 속여 넘기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녀가 세상 사람들 앞에 은닉하고 있는 것은 남루한 옷차림의 이 도령이 ㉠도포 속에 감춰 가지고 있던 마패 같은 것은 아니었다. 또는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가난한 여주인공이었던 여자가 알고 보니 무슨 재벌 총수의 딸이더라든 식의 돈 많고 지위 높은 아버지를 감춰 두어서도 아니었다. 글썽, 그녀로선 남들이 눈치 채지 못하는 자기 맘속의 어떤 그윽하고 힘찬 상태, 그걸 뭐라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중략)

한수가 십 년 전 처음 문자의 자취방으로 드나들기 시작했던 때는 한겨울이었다. 유난히도 눈이 잦았던 그해 겨울을 문자는 거의 지붕 위에서 살다시피 보냈다. 눈이 쌓인 채로 놔두면 그 물이 언제까지나 콘크리트 천장으로 스며들어 곳곳에서 낙수가 지곤 했다. 오르내릴 사다리라도 변변치 않았고 고압선이 길게 늘어져 있어 위험하기 짝이 없는데도, 문자는 부삽을 들고 날개가 달린 듯 지붕으로 오르내렸다. 식당을 한다는 주인집 내외가 비죽이 웃으며 대청마루에 선 채 구경 삼아 쳐다보고 있거나 말거나, 그녀는 빨강계 상기된 얼굴로 마치 춤추듯 가볍게 눈을 펴서 지붕 아래로 집어던졌다. 어쩌다 지나가던 행인이 흙탕물이 튀었다고 화를 내면, 날뭇 뛰어내려 그의 바짓가랑이를 털어 주며 만족할 때까지 몇 번이나 사과하고 나서 또 다시 지붕으로 올라가곤 했다.

또한, 헛간이나 다름없는 문자의 부엌에는 수도가 없었기 때문에 안집 마당에 있는 수도에서 일일이 물을 길어다 먹었다. 안집 마당으로 가지면 부엌 뒷문으로 나가서 높고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야 했다. 이전의 세든 사람들에게, 그 계단이 죽지 못해 오르내리는 ㉡굴욕의 사다리로 여겨졌었다. 그 가난한 여인들은 자신이 양손에 물바게쓰를 들고 킁킁거리며 계단을 오르는데, 주인집 여자가 비죽이 웃으며 자기의 뒷모습을 주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싫었다.

그러나 똑같은 방을 빌려 사는 처지이면서도 문자는 그녀들과 전혀 달랐다. 그녀가 뒷문 앞에 나타날 때 보면, 무슨 좋은 일을 하다가 중단하고 나온 것처럼 항상 두 뺨이 빨그레했다. 때로 그녀는 양손에 바게쓰를 든 것도 있고 층계참에 서서 한참 동안씩 하늘을 쳐다보곤 했다. 그리고 난 뒤엔 두 뺨에 빨그레한 빛이 안에서 불을 켜 것처럼 더욱 짙어졌다. 그녀가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은 마치 몸속에 깃들어 있는 싱싱한 생명의 탄력이 음계를 밟고 있는 듯이 보였다.

그래서, 그 계단은, 그 위에 있는 아주 신비롭고 아름다운 세계를 그녀 혼자만 누리기 위해, 외부로 나타난 부분을 일부러

조악(粗惡)하게 꾸며 놓 것같이 보였다.

주인집과 그 집에 세 들어 사는 여느 식구들은 문자가 새벽같이 층계참에 나와 매운 연기를 마셔 가면서도 연탄 화덕에다 신나게 부체질을 활락활락 해 대며 때로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는 광경을 종종 볼 수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부엌의 아궁이에선 물이 솟았기 때문이다.

아궁이뿐만 아니라, 지붕이며 방고래를 고쳐 달랠 만한데도 문자가 혼자 힘으로 잘 참아 나가자, 주인집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녀에게 물세 불세까지도 터무니없이 물리었다. 그래도 문자는 한마디도 따지지 않고 달라는 대로 선선히 내주었다. 마치 큰 여유가 있어 그만한 일은 불문에 붙이는 것처럼. 때문에 한집에 세 들어 사는 여인들은 문자의 살림 행편이 걸 보기보다 훨씬 알심 있을 거라고 추측했다. 어느 날 그녀들은 자기들끼리 짜고 불시에 문자를 찾아갔다. 방 안을 찬찬히 둘러본즉, 물이 스며든 천장은 페인트칠이 일어나 너덜거렸고, 녹슨 손잡이가 달린 캐비닛 이외에 이렇다 할 세간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들로서는 문자의 ㉢두 뺨에 서린 빨그레한 홍조와 노래를 몸에 휘감고 있는 듯한 그 발랄한 생기가 어디에서 연유하는지 더욱 몰라졌다. 그녀들은 문자가 수돗가에 나왔다가 떠나고 난 뒤에, 향기 좋은 꽃으로 가슴을 꼭 눌렀다가 펴는 것 같은 그 느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중 누가 엄지손가락으로 돌았다는 시늉을 해 보이면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듯 폭소를 터뜨렸다.

그녀들이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문자는 남다른 무엇을 소유했던 게 아니었다. 그녀로선 무엇을 하든 그 일을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한 것뿐이었다. 콩나물을 다듬든, 연탄불을 피우든, 지붕 위의 눈을 치우든 그를 생각하노라면 어딘가 높은 곳에 등불을 걸어 둔 것처럼 마음 구석구석이 따스해지고, 밝아 오는 것을 느꼈다. 그 따스함과 밝은 빛이 몸 밖으로 스며나가 뺨을 물들이고, 살에 생기가 넘치게 하는 것을 그녀 자신은 오히려 깨닫지 못했다.

한수가 그녀에게 오는 것은 단지 일요일 뺨뺨이었지만, 그는 항상 그녀의 ㉣시렁 위에 걸려 있는 등불이나 다름없었다. 시장에서 물건을 깎다가도 그녀는 ‘그가 만약 이 사실을 안다면’ 하고 깎는 일을 그만두었고, 남과 다들 뻘하다가도 그를 떠올리면 분노가 축축하게 가라앉았다.

이렇게 해서 월요일, 화요일 …… 토요일을 보내는 사이에 그는 그녀의 존재 자체를 조금씩 연금(鍊金)시켜, 이윽고 일요일이 되었을 땐 그녀의 손길이 닿기만 해도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금빛 물이 들었다.

문자는 그가 미처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이미 그의 발걸음 소리를 알아듣고 미리 나가서 그를 맞아들였다. 그녀가 그의 옷을 벗기면 그 옷이 금빛으로 물들었고, 양말을 벗기면 양말이 그러했다. 뜨거운 물이 담긴 대야를 가져와 그의 발을 씻기면 그 발 역시 금빛이 났다.

그녀가 그를 위해 마련한 저녁상은, 가난한 자가 일주일 내내 거친 술과 젖은 걸레로 마룻바닥을 힘들여 닦아서 번 돈으로 ㉤성전(聖殿) 앞에 켄 양초를 사는 것같이 마련된 것이

었다.

한수는 그녀가 살코기를 집어 줄 때마다 입을 딱 벌려 받아 먹기만 할 뿐, 자기도 그녀의 입에 그 고기를 먹여 주려는 생각은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다. 한수의 마음은 무디고 이기적이어서 **온 방 안에 가득 찬 금빛** 을 보지 못했고, 가만히 있어도 그 침묵이 노래임을 알지 못했다. 심지어는 그녀의 몸을 만지면서도 **㉠ 잘 익은 과육에서 나는 것과 같은 향기가 자기 손가락에 묻어나는 것도 몰랐다.**

- 서영은, 「먼 그대」 -

28. 위 글의 '문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변의 평가에 좌우되면서 주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
- ② 소극적이고 유약한 듯하지만 내면의 힘을 간직하고 있다.
- ③ 자신의 순수한 삶을 타인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 ④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채 이웃들과의 소통을 갈망하고 있다.
- ⑤ 비참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지니고 있다.

29. **두 뺨에 서린 말그레한 홍조**와 **온 방 안에 가득 찬 금빛**의 공통적인 원인이 되는 대상을 비유한 구절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30. 위 글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주변 인물의 시선을 통해 '문자'의 심리 변화의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 ② 현재와 과거의 교차를 통해 과거의 특정한 시간이 애상적으로 회고되고 있다.
- ③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는 눈을 통해 '문자'의 사랑이 환상적으로 미화되고 있다.
- ④ '한수'의 성격에 대한 부정적 서술을 통해 '문자'의 사랑에 내재된 시련이 암시되고 있다.
- ⑤ 사실적으로 묘사된 '문자'의 열악한 생활공간을 통해 사회에 대한 주인공의 좌절감이 표출되고 있다.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너무나 잘 아는  
순환의 원리를 위하여  
나는 피로하였고  
또 나는  
영원히 피로할 것이기에  
구태여 옛날을 돌아보지 않아도  
설움과 아름다움을 대신하여 있는 나의 궁지  
오늘은 필경 궁지의 날인가 보다

내가 살기 위하여  
몇 개의 번개 같은 환상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꿈은 교훈  
청춘 물 구름  
피로들이 몇 배의 아름다움을 가하여 있을 때도  
나의 원천과 더불어  
나의 최종점은 궁지  
파도처럼 요동하여  
소리가 없고  
비처럼 퍼부어  
젖지 않는 것

그리하여  
피로도 내가 만드는 것  
궁지도 내가 만드는 것  
그러할 때에는 나의 몸은 항상  
한 치를 더 자라는 **㉠꽃이** 아니더냐  
오늘은 필경 여러 가지를 합한 궁지의 날인가 보다  
암만 불려도 싫지 않은 궁지의 날인가 보다  
모든 설움이 합쳐지고 모든 것이 설움으로 돌아가는  
궁지의 날인가 보다  
이것이 나의 날  
내가 자라는 날인가 보다

- 김수영, 「궁지의 날」 -

(나)

한 섬의 보체는 아픔이  
다른 섬의 보체는 아픔에게로 가네.

한 섬의 아픔이 어둠이라면  
다른 섬의 아픔은 빛  
어둠과 빛은 보이지 않아서  
서로 어제는  
가장 어여쁜  
꿈이라는 집을 지었네.

지었네, 공기는 왜 사이에 흐르는가.

지었네, 바다는 왜 사이에 넘치는가.  
 우리여 왜,  
 이를 수 없는가 없는가.

한 섬이 흘리는 눈물이  
 다른 섬이 흘리는 눈물에게로 가네.

한 섬의 눈물이 불이라면  
 다른 섬의 눈물은 재. 불과 재가 만나서

보이지 않게  
 빛나며 어제는 가장 따스한  
 한 바다의 ㉞하늘을 껴매고 있었네.  
 - 강은교, 「섬 - 어떤 사랑의 비밀노래」 -

3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추측의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하강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동일한 구절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이 지닌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다.
- ⑤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자연물과 인간의 속성을 대비하고 있다.

32.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에서 '나'는 '순환의 원리를 위해'는 자신의 모습이 앞으로 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② 1연에서 '나'는 '궁지'를 '설움과 아름다움'과 관련하여 인식하며 '오늘'이 지니는 의미를 깨닫는다.
- ③ 2연에서 '나'는 '번개 같은 환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것을 자신의 '원천'으로 여기지 않는다.
- ④ 2연에서 '나'는 '소리가 없'고 '찢지 않'은 채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바로잡아야 함을 인식한다.
- ⑤ 3연에서 '나'는 '피로'와 '궁지'가 모두 자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인식한다.

33. ㉞, ㉟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㉞는 '한 치'만큼 변화했다는 점에서 화자가 갖고 있던 조금 함을 해소하는 주체이다.
- ② ㉟는 '따스한' 것이라는 점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주체이다.
- ③ ㉞는 '자라는' 것이라는 점에서 성장에 대한 지향을, ㉟는 '껴매'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화합에 대한 지향을 내포한다.
- ④ ㉞는 '오늘'의 것이라는 점에서 현재를 낙관하게 하는, ㉟는 '어제'의 것이라는 점에서 현재를 성찰하게 하는 대상이다.
- ⑤ ㉞는 '나의 몸'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만남의 가능성을, ㉟는 '한 바다'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극복의 가능성을 드러낸다.

34.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와 (나)는 대립 관계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순환과 연결의 관계로 파악한다. (가)는 상반된 마음 상태가 순환을 이루는 관계를 보여 주며, 서로가 서로의 전제이며 어느 하나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을 드러낸다. (나)는 고립되어 있는 두 섬이 대립적인 면을 지녔음에도 공통점을 갖고 있음을 보여 주며, 두 섬이 그 공통점으로 인해 연결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① (가)의 '모든 설움이 합쳐지'는 것이 '궁지의 날'이라는 것은, 설움이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겠군.
- ② (가)의 '궁지의 날'이 '모든 것이 설움으로 돌아가는' 날이라는 것은, 상반된 마음 상태가 순환을 이루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겠군.
- ③ (나)의 두 섬이 '꿈이라는 집을 지'은 것은, 고립되어 있는 두 섬의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겠군.
- ④ (나)의 한 섬의 '눈물'이 '눈물에게로 가'는 것은, 두 섬이 공통점으로 인해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⑤ (나)의 '불'과 '재'가 '빛나'는 것은, 대립적인 면을 지닌 두 섬을 연결되게 만든 공통점에 해당하는 것이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십시오.